

# “F1 지원법 제정, 명분도 취지도 충분”

##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민주당 의원들 퇴장속 가결

### 국회 전문위원실 보고서 “특혜 논란 등 보완 필요” 4월 임시국회 통과 낙관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입법 취지가 바람직하다”며 긍정적 검토 의견을 올려 지원법 제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심의할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27일에 열려 일정상 이번 국회에서 상정만 된 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원법 제정 필요성 인정=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5일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경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특히 “대회운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공익적 성격의 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17대 국회(당시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했으나 무산)에서 지적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고했다.

이제 전문위원실은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회 관련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 대부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자금차입권 부여 ▲기념주화 판매 ▲기념우표 발행 ▲공무원 파견 요청 등에 대해서는 다른 국제경기대회에서도 입법 사례가 있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다”고 분석했다.

◇기업 특혜 논란 신중 검토해야=그러나 전문위원실은 “대회운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긍정적 검토 의견이 나와 지원법 제정 전망이 밝아졌다. 영암군에 건설중인 F1 경주장 기공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영기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의 지정 및 지원, 개최권료 지원, 대회 관련 수익사업권 부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은 특정 대회운영기업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반응=전체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원법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신중 검토’ 사항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마지막까지 특위 위원들을 설득, 원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남도는 특정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부분에 대

해 “외국에서도 F1 대회 운영방식 대부분이 민·관합작방식이었고 전세계 모든 F1 대회 개최국에 대해운영기업(프로모터)이 존재하며 지원 방식에 있어 차이가 날뿐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수익사업권과 관련 “다른 국제행사에서도 조직위원회에 수익 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F1 대회 특성상 대회 개최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수익적 성격의 사업은 대회 운영기업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준동의안 상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소위에서 퇴장,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의원만 참석할 가운데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의결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인 황진하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는 빠른 시일내에 성사돼야 한다.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논의하자”며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이법관 윤상현 진영,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황 위원장은 비준동의안 전체회의의 회부를 선포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18일 비준동의안이 직권상정될 당시 위원장 권한으로 소위로 회부된 것은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소위 회부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경우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의 파행도 불가피하다”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자”고 주장한 뒤 퇴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적법성 문제를 따지려면 소위에서 따지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따지자”고 맞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FTA는 양국관계상 중요한 어젠다이고, 서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최고의 의지를 갖고 있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도교육청 부지 매각 협상 급진전 ‘중외 미디어 파크’ 조성 청신호

### 광주시-도교육청 감정평가단 구성 합의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핵심 현안인 ‘중외 미디어 파크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이 2년 여 동안 부지 매입가를 놓고 줄다끼리를 벌였던 미디어 파크 조성 예정지(전남도교육청부지·3만6천938㎡) 매각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도교육청 부지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단 구성 문제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매각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감정평가단 참여 인원을 놓고 시는 도교육청보다 1명 더 많은 숫자를 요구했으나 양 기관이 1개 법인을 선정, 가격을 산술 평균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시는 도교육청과 조만간 협상안에 합의한 뒤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 추경예산에 부지 매각 대금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와 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협상을 진행했으나, 현격한 부지 가격차로 협상에 난항

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이 평가업체의 감정가를 근거로 314억원을 제시했으나 시는 시가 등을 고려해 200억원으로 맞서 사실상 협상이 중단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영어체험센터나 제2연수원 부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밝히며 시를 압박했고 시는 ‘땅 가치가 떨어지는’ 공원부지로의 용도변경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하지만 옛 한국은행 등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의 ‘시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온 박광대 시장이 매입 원칙을 지시해 협상의 숨통을 트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부지 매입이 순조로울 경우 미디어 파크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7년 중외공원 일대에 대해 2020년까지 1천727억 원을 들여 10개 사업 37개 시설을 정비·신설해 문화거점지구로 육성하기로 한 바 있다.

미디어 파크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7대 문화권 가운데 하나인 ‘시각미디어 문화권(중외공원 일

대)’ 조성 사업의 핵심 인프라다.

중외공원과 인접한 전남도교육청 부지에 조성되는 미디어 파크는 시민들이 첨단미디어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상호소통형 미디어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시립미술관, 연속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관 등이 집적돼 있는 중외문화예술벨트에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접목하는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밖에도 시각미디어 문화권에는 아시아 색채문화센터, 도시역사박물관 등이 조성된다. 시는 최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2010년 연차별 실시계획’안에 78억원을 배정하는 등 시각미디어 문화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부지매입 협상이 활력을 찾음에 따라 시각 미디어 문화권 조성사업이 활력을 얻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 교육청이 무안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 부지에 ‘중외 미디어 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지역현안 시·군과 함께 고민” 박준영 전남지사 도민과 대화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5일 “오는 5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을 공동 연구해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 중앙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무안과 함평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갖고 “시군 순방을 통해 지역 현안을 도와 시군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예산협의가 시작되는 5월 이전까지 모든 사업을 확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기업 유치에 모두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무안을 방문한 박 지사는 “국제공원이 생기면서 인근에 기업도 유치되고 도청 근처에는 새

로운 행정도시가 조성되고 있다”며 “군과 군민들이 기업도시에 들어설 기업 유치와 행정도시에 이전할 유관기관들에 많은 애정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무안공원과 관련해 “아시아나 북경노선을 다시 운항하고 일본 오사카 운항도 계속 요청중이고 세계적 물류회사와도 접촉중”이라며 “약실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등 행복마을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후에는 함평군을 방문, “함평에 조성될 국가산단에 광주가 하고 있는 광산업, 자동차산업 등 관련분야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고 대형회사

가 들어오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함평하면 나비, 나비하면 함평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생태관광 모델을 만들었다”고 평가한 후 “현재의 생태관을 향후 세계적인 파충류센터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깨끗한 공기와 숲, 갯벌, 해수욕장, 풍부한 일조량, 4계절 레저가 가능한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관광 및 은퇴자 유체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업 및 천지한우 육성 등에 대한 함평군의 노력을 크게 평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www.lexus.co.kr

IS 250 VDIM

다른 이에게 코너지만 나에겐 직선이다

이것이 VDIM을 장착한 S250의 힘이다. 최상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가능케하는 VDIM시스템

느껴보시겠습니까?  
완벽으로의 경험  
Experience the Perfection

2009년 2월 렉서스 구매에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한정기간

Style Dynamic All New IS 250 Style Edition

(주)남양모터스 광주광역시 서구 신흥동 970-14 Tel:080-384-7733 / FAX:062-384-7722 www.lexusny.co.kr